

## 44 | 자동차 제조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경추 제3-4번 및 제5-6번간 추간판탈출증

성별	남	나이	43세	직종	자동차 제조업	업무관련성	높음
----	---	----	-----	----	---------	-------	----

### 1 | 개 요

근로자 조○○은 1986. 10. 25. ○○자동차(주) ○○공장에 입사하여 생산관리1부에서 근무하던 중 2008년 경추 제3-4번 및 제5-6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다.

### 2 | 작업내용 및 환경

근로자 조○○은 1986년 10월 25일 ○○자동차(주)○○공장에 입사하여 생산관리1부 A조의 10개 공정에 걸쳐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. 작업한 10개 공정은 각 공정마다 3개월씩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었다. 근무시간은 주간 08:00~18:50, 야간 21:00~8:00로 1주 단위 2교대이고, 2시간마다 10분간의 휴식시간이 있고, 보통 하루 중 약 10시간의 근무와 1~2회/월의 주말근무(토요일 17:00~일요일 08:00)도 실시하고 있었다. 업무는 주로 상체를 이용하여 전산 및 컴퓨터 모니터 사양과 실제 투입되는 차체를 대조하여 사양확인하며 특히 사양지 공정은 시간당 52대 투입되는 차체에 프린트되는 사양지를 1대에 2장씩 사양확인 후 마스킹테이프를 이용하여 열려있는 후드 상단에 붙이고 왼쪽으로 돌아 차체 내부바닥에 있는 차대번호를 확인하여 수행하였다. 작업 시 관찰된 10개 공정 35개의 작업자세를 RULA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35개의 작업자세 중 24개의 작업자세가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요구되거나 즉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, 또한 목 부위 중심으로 살펴보면 35개의 작업자세 중 27개가 불량한(worst)작업자세에 해당되었다.

### 3 | 의학적 소견

근로자 조○○은 운동이나 사고로 인해 다친 적은 없다고 하였고 음주는 월 1회 맥주 1병 정도, 흡연은 21년간 반갑정도를 해왔다고 하였다. 2007. 9월경 사양지 공정 근무시 엄지손가락과 팔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났고 점차 통증이 빈번해지고 정도가 심해졌다고 한다. 2008. 3. 3. 박스를 운반할 때 갑자기 어깨 통증이 심해지고 우측 팔을 사용할 수 없었고, 2008. 3. 12. ○○병원을 방문하여 MRI를 촬영한 결과 제3-4번, 5-6번 경추부에 추간판탈출증 소견을 보였다. 사내 산업보건센터에서 수시건강진단으로 제3-4, 5-6번 경추간판탈출증 진단으로 요양치료를 받았다. 2008. 4. 17. 제5-6번 경추간판탈출증으로 ○○병원에서 추체유합술을 받았다. 수술이후 우측 어깨와 팔의 통증은 줄어들었으나 양측 손가락 저림은 개선되지 않아 현재 매일 ○○병원에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.

### 4 | 결 론

근로자 조○○은

- ① 2008년 3월 12일 MRI검사결과 경추 제3-4, 5-6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었으며,
- ② 위 상병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의 개인 병력, 외상력과 특이 질병력이 없었으며,
- ③ 인간공학적 평가 결과 상기 작업 공정에서 불안정한 작업자세로 경추의 굴곡과 과다한 신전, 옆으로 구부리기 등의 위험요인이 경추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,

근로자 조○○에게 발생한 경추 제3-4번 및 제5-6번 추간판탈출증은 약 22년 동안 경추부 부담작업에 대한 산업의학적 및 인간공학적 평가를 고려할 때,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.